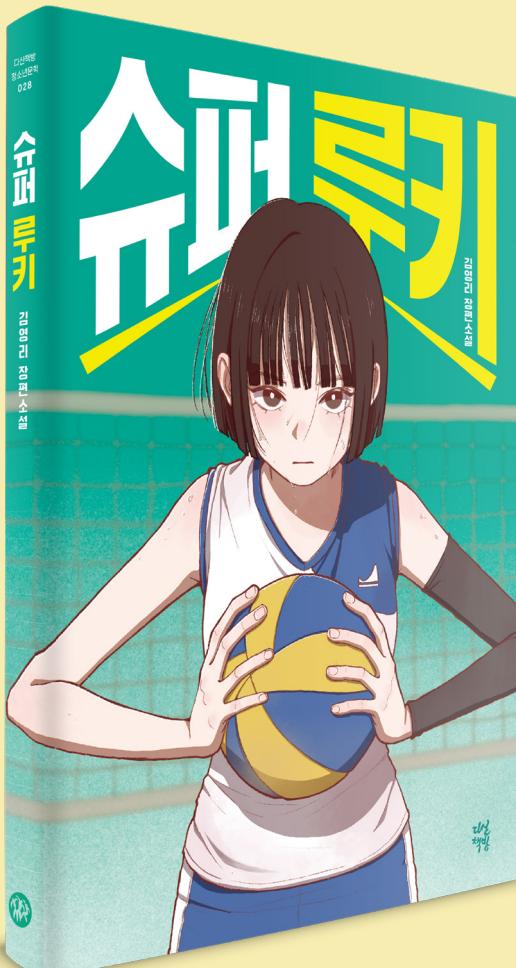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희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슈퍼 루키

김영리 장편소설

주제어: 성장, 스포츠, 꿈, 협동, 연대

• 책 소개

청소년 배구 차세대 루키로 떠오르던 키 185cm의 아웃사이드 히터 구나인. 네모난 코트 안에 들어가는 게 꿈의 전부던 나인은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경기 중 발목 부상을 당한다. 수술 후에도 꿈을 이루기 위해 남들보다 노력하지만, 코트 위에서의 몸은 무겁고 점프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러나 배구 코치인 아빠는 나인을 재촉하기만 하고, 새로 진학한 학교의 배구부 유일한 세터 세주는 자꾸만 나인이의 신경을 건드는데…….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던 세주는 차세대 유망주인 나인을 동경해 왔다며, 나인에게 함께 트라우마를 깨어보자고 한다.

배구를 혼자 해내기 바빴던 나인이는 새로운 팀과 세주로 인해 조금씩 변해가고, 더 이상 네모가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남은 전국체전 결승, 나인이는 부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네모난 코트 안에서 진정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 학습 목표

1.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인 배구라는 스포츠에 대해 알 수 있다.
2. 인물이 처한 상황을 통해 유사한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을 내면화할 수 있다.
3. 작품과 관련된 사회현상의 문제점을 살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학습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	읽기 전	배구 알아보기
1		<p>[프롤로그 ~ 1. 평범해질 순 없잖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창의적 읽기) 스포츠 관련 명언 소개하기 3. (감상적 읽기) 작품을 토대로 경험 떠올리기
2		<p>[2. 루키는 나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실적 읽기) 등장인물 정리하기 2. (사실적 읽기) 장면 상상하며 읽기 3. (추론적 읽기) 등장인물 심리 파악하기
3		<p>[3. 당연한 건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감상적 읽기) 작품을 토대로 경험 떠올리기 3. (배경지식 쌓기) 배구 용어 익히기
4		<p>[4. 질투는 나의 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실적 읽기) 등장인물 관계 정리하기 2. (사실적 읽기+추론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등장인물 심리 파악하기 3. (창의적 읽기)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통해 등장인물 이해하기
5	읽기 중	<p>[5. 거리두기 실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론적 읽기) 제목의 중의적 의미 추론하기 2. (감상적 읽기) 작품을 토대로 경험 떠올리기 3. (배경지식 쌓기) 배구 용어 익히기 4. (추론적 읽기) 상징적 의미 파악하기
6		<p>[6. 삐뚤빼뚤 데칼코마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감상적 읽기) 작품을 토대로 경험 떠올리기 3. (추론적 읽기) 등장인물 심리 파악하기
7		<p>[7. 아프지만 내 꿈이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등장인물 심리 파악하기 3. (감상적 읽기) 작품을 토대로 경험 떠올리기 4. (창의적 읽기+비판적 읽기) 작품과 관련된 사회현상 살펴보고 대안 마련하기
8		<p>[8. 하이틴을 부탁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비판적 읽기) 인물의 행동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3. (추론적 읽기) 비유적 표현 파악하기
9		<p>[9. 아낌없이 반짝이고 있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의적 읽기) 매체를 활용하여 장면 상상하며 읽기 2. (감상적 읽기) 꿈 소개하기/꿈 설계하기
-	읽기 후	만다라트로 꿈 계획표 작성하기

[읽기 전 활동] 배구 알아보기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배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 ▶ 참고 동영상1: 배구 경기 이해하기 (실제 경기 영상 & 하이큐 애니메이션)
<https://www.youtube.com/watch?v=2TYb5mFBQ08&list=PL33AEF253496AC807&index=1>
- ▶ 참고 동영상2: 배린이를 위한 배구 강좌 2(배구 포지션)
<https://www.youtube.com/watch?v=DaUHShPhkPk&t=2s>

1.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간단 퀴즈〉**

1. 나인의 키는?
2. 나인이 졸업한 중학교는?
3. 부상을 입은 나인의 병명은?
4. 나인 아빠의 꿈은?

2. 〈보기〉를 읽고 마음에 드는 스포츠 관련 명언을 찾아 아래에 옮겨 써봅시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보기〉**

배구선수 치고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점프력으로 모든 걸 극복했던 선수였다. 3센티미터만 더 크기를 바란 적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3센티미터가 더 커으면 이 점프력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명언을 남겨서 더 유명했다.

(예시)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 앨런 아이버슨

3. 다음 장면과 유사한 경험을 떠올려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보기〉

애써 아랫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꾹 누르는데, 아빠가 기어이 한마디를 더 보탰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세주만 하더라도…….”

“그만해. 맨날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저랬고. 다들 나보다 대단하지? 다른 사람들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나도 열심히 한다고!”

(중략)

아빠는 말없이 나를 보다가 먼저 눈을 돌렸다.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피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행동이 닮아 있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쓴 화살에 아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오롯이 느껴졌다. 조금 전 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명령어를 실행해 삭제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뒤돌아서 테니스장을 성큼성큼 빠져나왔다.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읽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팔호를 채워 석탑고 선수들을 정리하고, 영상을 참고하여 포지션별 역할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년	이름	등번호	포지션	별명	비고
3	이예준	()	아포짓 스파이커	()	주장
3	곽시온	15	()	()	-
3	최민서	8	아웃사이더 히터	-	-
2	박하린	5	()	()	-
2	한소라	7	아웃사이더 히터	-	-
2	손다정	-	세터	-	부장으로 유급
1	구나인	()	()	미꾸라지, 나꾸	-
1	김세주	()	()	음흉한 두꺼비	-

▶ 참고 동영상: 공격 포지션 참고 영상: 공격수, 그것도 알고 싶다.

<https://www.youtube.com/watch?v=kewvrSGX7U0&t=30s>

2. <보기>를 읽고 석탑고 배구부 유니폼을 색칠해 봅시다.

<보기>

석탑고 배구부 유니폼의 상의는 화이트에 바지는 코발트블루색이었다. 그리고 보니 김세주의 해어 밴드는 유니폼 바지 색깔과 깔 맞춤한 것 같았다.



3. <보기>와 작품의 내용을 참고하여 나인이 세주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보기>

김세주는 넉살 좋게 나서서 물티슈를 꺼내 배구공을 박박 닦았다. 나도 그 옆으로 가서 물티슈를 마구 뽑아 공을 잡아 벅벅 닦았다. 먼지가 더께로 쌓인 데다 진득진득해서 잘 닦이지도 않았다. 김세주가 내 옆으로 바짝 다가와 속삭였다.

“괜찮아. 긴장하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잖아. 이것도 바꿀 때 되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진 거야.”

“뭐가 자연스러워? 내가 맞혀서 떨어뜨린 건데. 너야말로 자연스럽게 끼어들지 마. 잘못이든 실수든 그거 내 거야. 네 거 아니라고.”

“뭘 그렇게 딱딱하게 굴고 그러냐.”

“네 말대로 긴장해서 그런가 보지.”

나는 차갑게 비아냥거린 뒤, 몸을 옆으로 돌리고서 공을 벅벅 닦았다.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읽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간단 퀴즈〉**

1. 113일째 대화하지 않았던 아빠가 나인에게 말을 건 이유는?
2. 부상을 당한 2학년 세터의 이름은?
3. 대회 출전으로 버스 타기 전 나온 급식 메뉴는?
4. 남학생과 여학생이 여학생 급식실을 함께 쓰게 된 이유는?
5. 석탑고에 세트 스코어 3:0(셧아웃)으로 승리한 두 학교의 이름은?

2. 〈보기〉와 같이 인물들의 콤플렉스를 알아보고, 여러분의 신체 콤플렉스를 살짝 고백해 볼까요?**〈보기〉**

“내가 발이 좀 작아서 너랑 발 크기를 좀 대보려고…….”

김세주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고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배구에서는 키가 클수록 점프할 때 유리해서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게 나의 자긍심이었다. 문제는 키가 큰 만큼 발도 크다는 것이었다.

유치원 때 다른 반 애들이 왕발을 보겠다며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개나리반까지 찾아오곤 했다. 동화 속 공주들은 모두 발이 작았다. 특히 신데렐라는 발이 커서 유리구두를 신지 못한 못된 언니들과 달리 발이 아주 아담했다. 잊어버린 신발 한 짝으로 인생 역전한 것은 콩쥐도 마찬가지였다. 유치원 선생님이 구연동화 시간에 못된 팥쥐가 꽃신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신으려 했으나, 발이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줄 때 다른 아이들은 배를 잡고 깔깔 웃었다.

그때 나는 세상 심각한 표정으로 꼬아 앉은 다리를 꾹 눌러서 발을 숨겼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모든 악녀는 왕발인 걸까. 대체 왜! 어릴 때부터 나의 소망은 발 사이즈가 한 치수라도 작아지는 것 이었다.

3. <보기>와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밑줄 친 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3-1. ‘스플릿 스텝’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기>

감독님은 내일 또 경기가 있으니 오후 훈련은 빼고 푹 쉬라고 하셨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스플릿 스텝이라도 연습하려고 운동 가방을 들고 체육관 뒤쪽 후미진 곳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뒤로 김세주가 따라왔다.

- ▶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Afe7KfHGpA4>
-
-

3-2. ‘플라잉 디그’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기>

“구나인. 네가 제대로 리시브를 안 받쳐 주니까 시온이가 몸이 갈리잖아. 이거 안 보여?”
“야야, 그만해. 플라잉 디그는 내 특장기야. 그걸 왜 1학년한테 뭐라 그래. 예준아, 가자. 너 지금 당 떨어져서 예민해서 그래. 밥 먹자 얼른.”.

- ▶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DBr36Rep_E
-
-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읽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작품을 읽고 등장인물의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보기〉

김세주는 우리가 딱 붙어서 공부하는 모습을 똥 씹은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전담 코치처럼 딱 붙어서 일대일로 가르쳐주는 멘토가 있어서 부러운 건가? 훗. 나는 김세주를 의식하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리고는 하준의 설명을 모두 이해하는 척 미소를 흘렸다.

“역시 수석은 다르네. 설명이 아주 귀에 쓱쓱 박혀.”

내 칭찬에 하준의 얼굴이 발그스름해졌다. 김세주 들으라고 한 소리인데, 반응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조현승이 의자를 뒤로 끌며 신경질적으로 일어나더니 뚜벅뚜벅 김세주에게로 향했다.

“야, 너 나랑 멘토링 하자. 난 수시 쓸 때 좋고, 넌 성적 올려서 좋고. 배구부라 대회 나가려면 공부도 좀 해야 하지 않냐? 내가 가르쳐줄게.”

책상에 머리를 기대고 반쯤 졸던 애들이 슬금슬금 머리를 들고 김세주와 조현승을 쳐다보았다. 다들 팝콘이라도 꺼내 들 기세였다. 김세주는 의자를 뒤로 빼서 비스듬히 등을 눕히고 다리를 꼬며 말했다.

“나 공부 잘하는데?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 누구처럼 굳이 ‘일대일’은 필요 없어.”

시선은 조현승을 향해 있었지만, 그건 나를 노린 공격이었다. 재 지금 나보고 멍청하다고 돌려 깐 것 같은데? 나는 이참에 내 더러운 성질 좀 보여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때 하준이 침착한 목소리로 나섰다.

“재능만 믿고 노력 안 하는 게 자랑은 아니지.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다, 누가 한 말이더라?”

나는 깜짝 놀라서 하준을 보았다. 평소엔 목소리도 작고 수줍음이 많아서 수선화 같은 녀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말을 잘하는 애였다니. 아무래도 수학을 잘해서 말도 논리적으로 하는 것 같았다. 하준의 말에 김세주가 발끈했다

“누가 노력을 안 해? 국어사전에 ‘노력’ 치면 그 옆에 내 얼굴 뜨는데?”

김세주는 한껏 비아냥을 담아 하준을 공격했고, 조현승은 나랑 얘기 중인데 왜 재랑 싸우는 거냐며 짜증을 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흥미롭게 관전했다. 김세주가 조현승에게 넌 좀 꺼지라고 까칠하게 쏘아붙이자, 조현승은 그제야 씩씩거리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호의적임 : O

적대적임 : X

모호함 : △

하준 ←———— () —————→ 세주

나인 ←———— () —————→ 세주

하준 ←———— () —————→ 현승

하준 ←———— () —————→ 나인

2. 작품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보기〉

노란 유니폼. 14번이 점프……. 어? 헤어밴드를 차고 있네? 자세히 보니 키가 엄청나게 커진 김세주였다. 네트 너머의 상대 선수 여섯 명 모두 헤어스타일이 다른 김세주였고, 심판, 감독님, 관중들 역시 모두 김세주였다. 심지어 우리 코트엔 달랑 나 혼자였다.

이게 뭐야! 항의할 새도 없이 14번의 손에 맞은 공이 내 쪽으로 날아왔다. 자세를 잡고 공을 받아올리려는데, 배구공에 눈코입이 박혀 있었다. 또 김세주였다.

“으어억!”

하루아침에 악몽이 바뀌었다. 훨씬 더 짜증 나는 방식으로.

2-1. 앞부분을 참고하여 14번이 누구의 등번호인지 찾아봅시다.

2-2. 등번호 14번을 한 김세주가 등장하는 꿈을 꾸는 구나인의 심리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3. <보기>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보기>

기형도의 「질투는 나의 힘」이었다. 처음 보는 시였지만, 제목을 보자마자 어폐적으로 심장을 한 대 꽂 맞은 것 같았다. 그 충격으로 몸은 교실에 앉아 있지만 머리는 체육관으로 향했다.

“줄지 말고 필기 잘해라. 프린트물도 국어책 검사할 때, 다 수행평가 점수로 들어가는 거 알지? 너희들 좋아하는 ‘점수’에 환산되는 거니까 집중 좀 하자. 같이 읽어봅시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아침마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스웻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체육관 벽을 찍고 돌아서 달릴 때 내 옆에는 항상 김세주가 있었다.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춘계 대회에 나가기 전 아빠가 김세주를 질투하느냐고 물었을 때, 절대 아니라고, 질투도 급이 맞아야 하는 거라며 발끈했지만, 사실 그건 질투였다. 나채민에게는 아무렇지 않았던 감정이 이렇게 사인곡선을 그리듯 요동치는 건 내가 인정한 첫 라이벌이 김세주이기 때문이었다.

김세주가 내 인생에 나타난 이후 나는 조연으로 밀려난 기분이었다. 리시브 대결에서 쪼여 벤치까지 확정되면 엑스트라로 추락할 것 같았다. 김세주를 이길 수 있을까. 나는 다시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

3-1. 다음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시 「질투는 나의 힘」에 대해 알아봅시다.

- ▶ 참고 링크: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67367&cid=58824&categoryId=58837>

- ▶ 참고 동영상: 질투는 나의 힘 해석 | 기형도 | 2025 수능특강 | 현대시

<https://www.youtube.com/watch?v=jcvP5YFPoRs>

3-2. 「질투는 나의 힘」의 주제를 고려하여 이 작품과 나인의 상황 및 처지 사이의 연관성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지도 TIP

단순히 제목(질투)과의 관련성을 넘어서서 ‘성찰’, ‘자격지심’, ‘부끄러움’, ‘반성’ 등 작품 속에 내재된 주제의식을 <보기> 뒷부분에 제시된 나인의 심리 및 행동과 관련지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5. 거리두기 실패’를 다 읽고 소제목이 지닌 중의적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지도 TIP

하준과 세주가 쌍둥이인 것을 알게 된 후 거리를 두려 했던 나인이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표면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 리시브 대결 후 드러난 세주와 나인 사이의 좁혀진 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2. 〈보기〉를 읽고 나인과 유사한 감정을 느꼈던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보기〉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누웠다. 마침 아빠가 일찍 퇴근한 건지 집으로 왔다. 아빠는 방문을 열자마자 폭풍 잔소리를 시작했다.

“세주랑 싸웠다며? 구나인, 네가 애야? 입학한 지 얼마나 됐다고 별써 팀원이랑 싸우면 어떡해.”

“어, 나 애야. 철없고, 느리고, 배구머리도 없는 구제불능이야. 근데 나 아빠 애야. 다른 집 애 아니고, 아빠 딸이라고.”

“나인아.”

“이럴 땐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내 딸이 최고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아빠가 밖에선 구 감독님이든 말든 집에서만큼은, 나한테만큼은 그냥 아빠이기를 바랐다. 내가 잘 할 때는 아빠가 감독이든 코치든 상관없었지만, 내가 찌글찌글하고 못났을 땐 괜찮다고 나를 안아주는 아빠가 필요했다.

(중략)

그런데 조금 전, 나는 감추기만 했던 감정을 터뜨렸다. 아빠가 눈치챘을까. 내가 얼마나 약하고 못난 딸인지. 알아주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빠가 끝까지 몰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팽팽하게 맞섰다.

3.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밑줄 친 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기〉

“민서는 증거 영상으로 남기게 녹화 준비하고, 예준이는 내 옆으로 와서 볼 올리고, 나머지는 볼 리트리버랑 마파. 다들 제자리로.”

- ▶ 참고 자료: [스포츠박사 기자의 스포츠용어 산책 521] 배구에서 볼을 줍는 이를 볼 리트리버(Ball Retriever)라고 부르는 까닭(마니아타임즈, 2021.10.11.자.)
https://www.maniareport.com/view.php?ud=202110110756293265e8e941087_19
-
-
-

4. 나인이 하준의 도움으로 우산 무게중심을 잡는 행위의 상징성과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 봅시다.

〈보기〉

하준이 내 손을 잡아끌어 우산 아래에 받쳐 주자 순간 전기가 통한 듯 몸이 찌르르 떨렸다. 나는 눈을 꼭 감은 채 검지에만 집중했다. 양쪽 검지가 번갈아 이동하더니 서서히 중심이 맞춰지는 게 느껴졌다.

이제 된 것 같아서 슬그머니 눈을 떴더니 검지 두 개가 딱 맞닿아 있었다. 장우산의 무게중심은 가운데가 아니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도 수평을 이루었다. 표면 마찰계수니 받침점 위치니 하준이 열심히 설명해 주었지만, 그딴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나를 보는 하준의 눈동자 속에서 내가 활짝 웃고 있었다.

지도 TIP

단순히 하준과 나인 사이의 관계 발전에 관한 추측뿐만 아니라 ‘장우산이 무게중심을 잡는다’라는 사실에 담긴 상징성과 나인과 세주, 나인과 아빠 사이의 갈등 해결 양상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다음 팔호를 채워봅시다.

수학 전교 1등은 입학 수석이었던 (㉠)이/가 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이/가 1등을 차지했다. 수학 꼴찌는 나인이었는데 점수는 (㉢)점이었다.

(㉠)은/는 (ԑ)에 엄청나게 복잡한 식을 적고 고민하는 것을 즐겼는데, (㉡)은/는 그것을 (㉠)이/가 (ԑ)하는 거라며 비난했다. 그에 나인이 ‘살다 보면 좀 느릴 수도 있지!’라며 (㉡)을/를 나무랐다.

㉠ :

㉡ :

㉢ :

ԑ :

ԑ :

2. <보기>와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들어주기의 힘에 대해 알아보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보기>

우리는 구구콘의 달달함으로도 기분이 영 좋아지질 않았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속상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며 하소연 들어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빠진다고 하자, 하준이 씨익 웃으면서 말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게 뭐가 어렵다고.”

- ▶ 참고 동영상: 공감의 대화 기술 – 고민에 대해 충고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공감의 마음 갖기, 들어주기

<https://www.youtube.com/watch?v=pQSTNDEaCxk>

3. <보기>에서 밑줄 친 하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추측해 봅시다.

<보기>

“너 진짜 김세주랑 말 안 하는구나? 나 코트에서 삼질한 지 꽤 됐는데.”

나는 작년 U18 이후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몸소 체험 중이라며 내 상태를 자조적으로 고백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느려서 팀에 도움도 안 된다고.

“근데 넌 갑자기 왜 느려진 거야? 너도 나처럼 생각이 너무 많아진 건가?”

불쑥 들어온 하준의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만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보기>의 밑줄 친 말이 나온 부분을 찾아 다시 읽어봅시다.

<보기>

“우리 영화 보러 갈까? 요즘 뭐가 재밌니?”

“갑자기 웬 영화. 뜯금없이…… 어?”

나는 불현듯 아빠에게 강속구로 퍼부었던 말이 떠올랐다. 주말에 이를 만나면서 맨날 잔소리하지 말고 다른 집 아빠처럼 물어보라고 했던 그것. 아빠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소름이 돋은 것처럼 양팔을 과장되게 쓸었다.

“테니스장에서 내가 한 말 고대로 되돌려 준 거야? 벼르고 있었구나? 그치?”

“당연하지. 매일매일 그때 생각했는데.”

2.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하준과 세주의 관계에 대해 상상해 봅시다.

<보기>

나는 병져서 세주를 빤히 보았다. 아까 화장실에서 속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이건 너무 선 넘는 거 아닌가? 근데 얘는 하준이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조심스레 이유를 물었다.

“그건 내가 아니라 김하준 그 자식한테 물어봐. 너네들 밤마다 놀이터에서 보는 거 다 알거든? 그리고 먼저 싫어한 건 내가 아니라, 아, 내가 먼저였나? 아 몰라. 개인 생각하면 짜증 나.”

- ▶ 참고 동영상: 남친&여친으로 엮는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중1 쌍둥이

<https://www.youtube.com/watch?v=MCxgOtKchCQ>

3. 다음 장면처럼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고, 관련된 에피소드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보기>

“작년 여름에 특훈하면서 구 감독님께 물어본 적이 있거든.

다른 감독님들은 나보고 안 될 거랬는데 왜 나를 불잡아 준 거냐고. 그때 구 감독님이 그러시더라. 간절히 원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나는 한 대 맞은 듯 심장이 쿵 울렸다. 엄마가 어렸을 때 매일 나에게 해주던 말이었다. 생각해 보면 엄마가 나에게 해준 말은 모두 아빠가 매일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찌르르 아프더라고. 나한테 꼭 필요한 말이었거든. 근데 그걸 나보다 더 배구를 오래 좋아한 사람이 해준 거야.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평범한 나한테.”

- ▶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
-

- ▶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

4. 다음 영상을 보고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 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보기〉

어렸을 때부터 배구만 해왔는데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어진 큰딸을 보고 부모님이 작은 딸마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만들 수 없다며 일찌감치 그만두게 한 것이다. 언니가 배구를 계속하겠다고 떼를 쓰자 아예 배구부가 없는 학교로 멀리 전학까지 시켜버렸다.

그때의 일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각인 되었다. 엘리트 배구 시스템에서는 학교를 떠나면 배구선수가 될 수 없었다. 부모가 언제든 자식의 꿈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공포로 남은 상황에서 아빠에게 그럴 거면 배구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 ▶ 참고 동영상: 메이저리그 MVP와 도쿄대생 동시 배출하는 일본 시골 학교의 비밀 [인덕션 | 한양대 이종성 교수] / 스브스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eDjcArMNcck>
-
-
-
-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팔호를 채워 대통령배 대회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우승	학교명: ()
	대표선수: ()
준우승	학교명: ()
	대표선수: ()
3위	학교명: ()
	개인 수상 선수(리베로상): ()

2. 꿈을 위해 도전하는 하준 아빠의 행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쓰고, 친구들과 토론해 봅시다.

〈보기〉

“아빠가 갑자기 더 늦기 전에 자신의 꿈을 찾아야겠다면서 카메라를 들고 출국해 버린 후로 엄마가 사회복지사를 관두고 수당이 더 많이 나오는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했어. 가족 중 누군가는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하준의 아빠는 방송국과 정식으로 계약한 촬영팀이 아니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다큐멘터리 촬영팀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아빠가 전 세계를 돌며 늦은 나이에 꿈을 이루는 동안 엄마는 묵묵히 소화제를 먹으며 사람들에게 보험을 권한 것 같다고 했다.

나는 하준 아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하준 아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왜냐하면

3. 다음에 쓰인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작품 속 다른 부분에 쓰인 참신한 표현을 찾아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보기〉

나는 크게 한 방울 노리겠다며 풍선에 물을 가득 채웠다. 그러는 사이 무방비한 나에게 집중적으로 물풍선이 쏘이자 하준이 달려왔다. 그러고는 팔을 벌려 나를 안고 물풍선을 막아주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나는 하준과 너무 가까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하준은 민망했는지 발그레해진 얼굴로 조그맣게 말했다.

“선수 보호.”

이 네 글자가 이토록 가슴 떨리는 말이었나? 하준이 나에게만 들리게 한 말의 함량을 분석해 보면
당류 77퍼센트, 타우린 99퍼센트가 아닐까. 따가운 햇살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우리 위로 무지개가 어른거렸다.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9. 아낌없이 반짝이고 있어

1. <보기>와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신인 드래프트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기>

8월 말 이틀간 구단 감독들이 트라이아웃을 열었다. 주말에 열린 공개 기량 테스트에서 선배들 모두 컨디션이 좋아 선전했다고 들어 기대가 컸다. 시온 선배는 마지막 4라운드에 뽑혔고, 예준 선배는 아슬아슬하게 수련 선수로 호명되었으나, 민서 선배는 떨어졌다.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지명하실 팀이 더 없는지 물었을 때 구단 관계자들은 모두 침묵했다. 그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가슴이 쪼그라들었다.

열다섯 학교의 졸업 예정자 중 서른아홉 명이 드래프트에 참여했는데, 수련 선수 두 명을 포함해 열 세 명만이 프로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 33.3퍼센트. V-리그가 출범한 이래 신인 지명률이 가장 낮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밥 먹고 운동만 했는데도 프로의 세계는 냉정했고, 프로의 문은 갈수록 더 좁아지고 있었다.

- ▶ 참고 동영상: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 눈물의 비하인드 | 신인선수 뽑는 날인데...왜 이렇게 슬픈가요
<https://www.youtube.com/watch?v=4fnAxgCzMaw>

2. 다음 두 물음 중 하나를 골라 답해봅시다.

<보기>

“재미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너처럼 가슴 뛰는 꿈이 생기지 않을까. 꿈이 생기면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해줄게. 메시지 말고 이렇게 둘이 만나서.”

“.....어.”

“약속.”

하준은 내게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나는 홀린 듯 손을 내밀어 하준과 약속했다.

[선택1] 여러분의 꿈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선택2]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꿈을 설계해 봅시다.

- ▶ 참고 동영상: 진짜 내 꿈을 찾는 법!! 방황하고 있는 그대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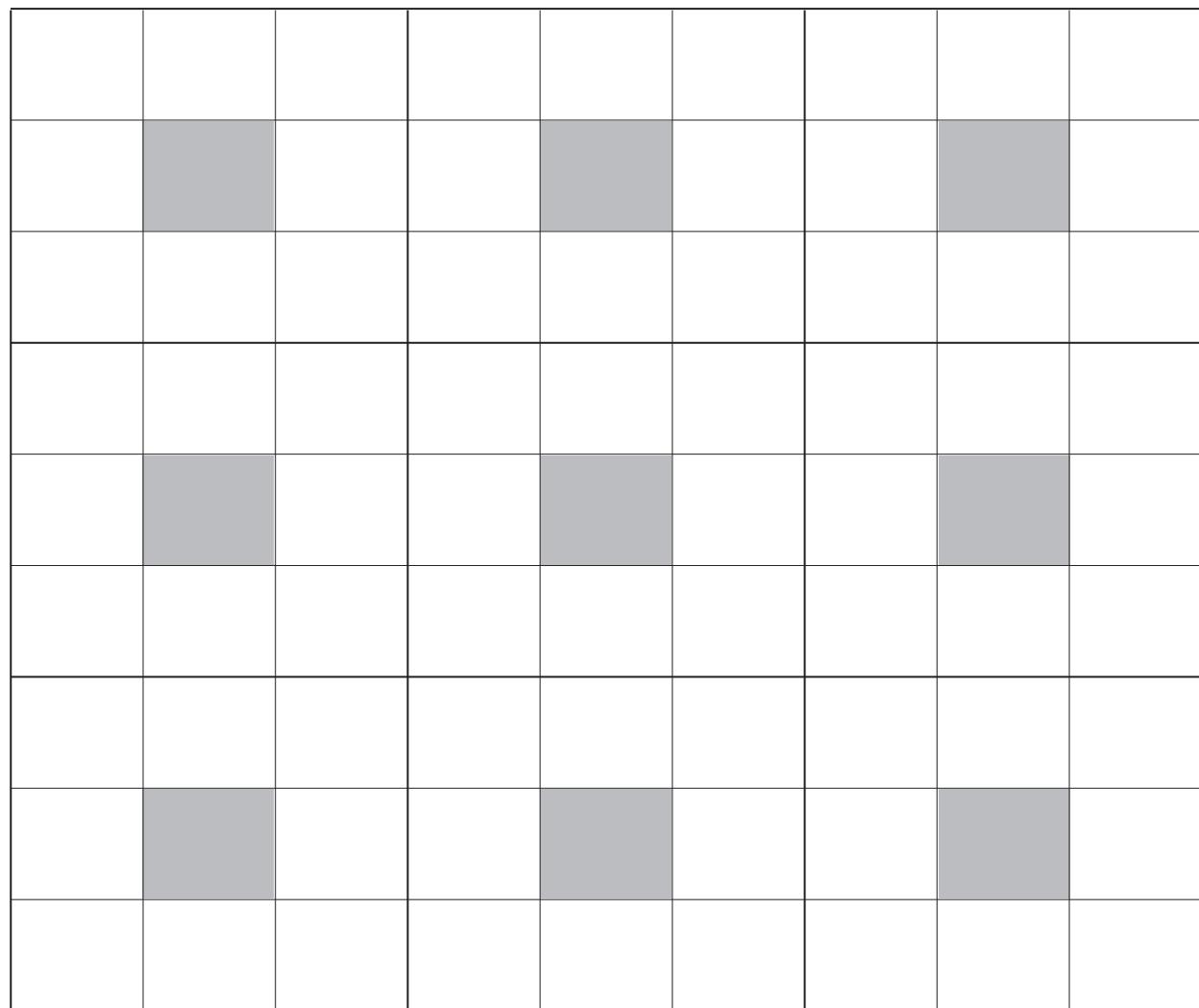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8onUlhw_qtQ&list=PLxIYNTU2dUyXrj3es3ui2QjmqxBcYYY8-&index=11

[읽기 후 활동] 만다라트로 꿈 계획표 작성하기

이 작품은 배구선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친구들의 노력과 성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 속 나인과 세주처럼 여러분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을 만다라트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해 봅시다.

- 참고 동영상: 이 계획대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만다라트 만들기

<https://www.youtube.com/watch?v=sv19ewxpSy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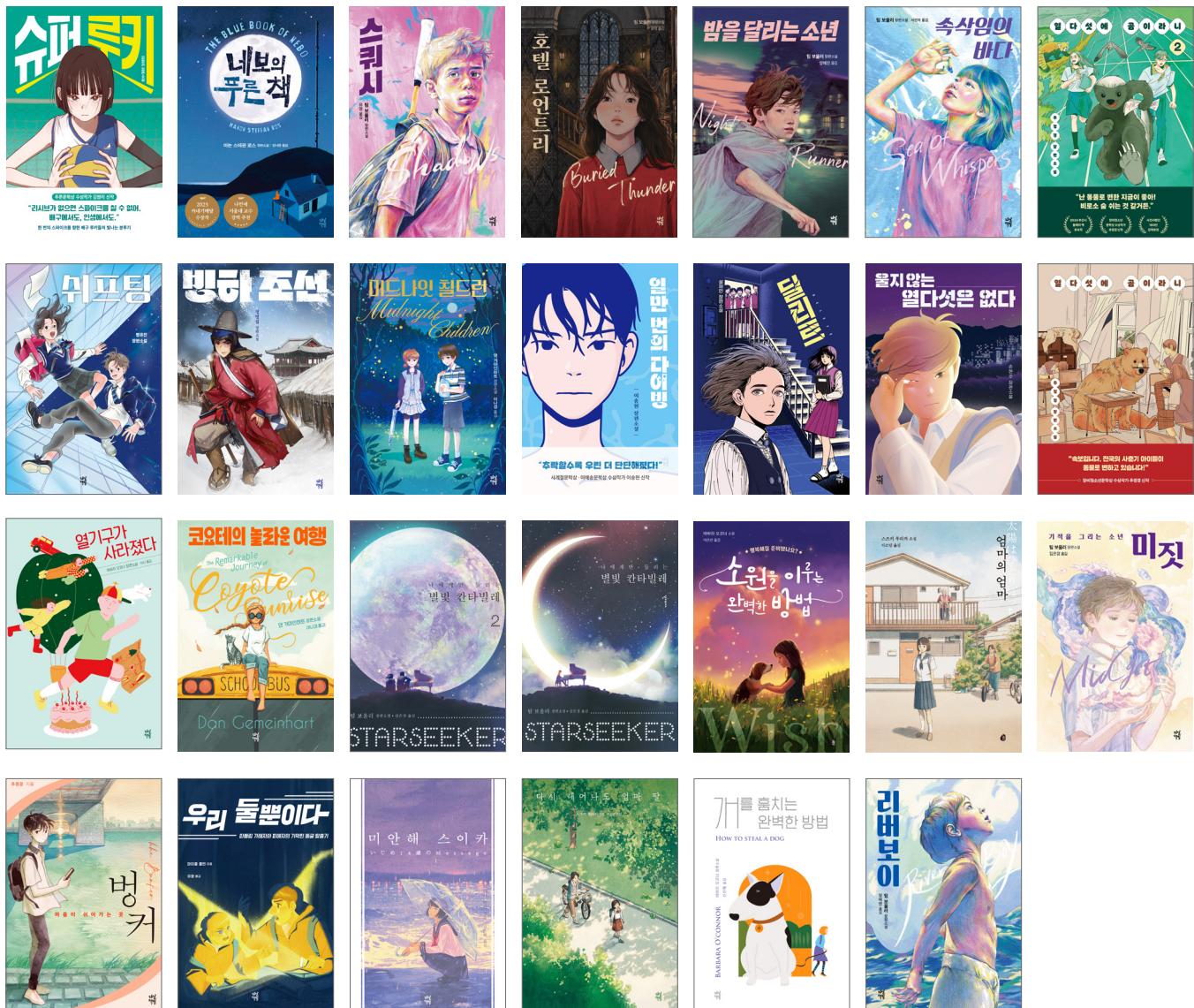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다산책방 청소년문학

다산책방 청소년문학은 오늘날의 십 대가 마주한 고민과 시대를 넘어서는 질문을 이야기로 풀어낸 시리즈입니다.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하고 읽는 재미까지 선사하는 작품을 엄선해 선보입니다.



28 슈퍼 루키 김영리 장편소설

27 네보의 푸른 책 마논 스템파인 로스 장편소설

26 스夸시 팀 보울러 장편소설

25 호텔 로언트리 팀 보울러 장편소설

24 밤을 달리는 소년 팀 보울러 장편소설

23 속삭임의 바다 팀 보울러 장편소설

22 열다섯에 곰이라니2 팀 보울러 장편소설

21 쉬프팅 범유진 장편소설

20 빙하 조선 정명섭 장편소설

19 미드나잇 칠드런 댄 거마인하트 장편소설

18 일만 번의ダイ빙 이송현 장편소설

17 딜리트 설재인 장편소설

16 울지 않는 열다섯은 없다 손현주 장편소설

15 열다섯에 곰이라니 추정경 장편소설

14 열기구가 사라졌다 비비라 오코너 장편소설

13 코요테의 놀라운 여행 댄 거마인하트 장편소설

12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2 팀 보울러 장편소설

11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1 팀 보울러 장편소설

10 소원을 이루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09 엄마의 엄마 스즈키 루리카 장편소설

08 미짓 팀 보울러 장편소설

07 병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추정경 장편소설

06 우리 둘뿐이다マイ클 콜먼 장편소설

05 미안해 스이카 하야시 미카 장편소설

03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스즈키 루리카 장편소설

02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01 리버보이 팀 보울러 장편소설